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3호 【루게 제24506호】주제103(2014)년 4월 3일(목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하자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철통같이 뭉쳐 사상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의 위대한 승리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장엄한 역사적시기에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명령에 따라 진행된 이번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행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적사상과 투쟁업적을 길이 빛내고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불바다를 헤쳐 온 혁명선열들의 백혈불꽃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조선혁명을 빛나게 완수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이 성과적으로 끝났다는 보고를 받은 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4월 1일 몸소 현지에서 그들을 만나시어 연합부대 지휘관들이 답사행군을 통하여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오중홍염의 지휘정신이 될 철석의 신념을 더욱 굳게 다진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날 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결의대회에 참석하시어 하신 강령적인 연설은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을 조선혁명의 넘으로, 생명으로 간직하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는 데서 증대한 역사적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적들의 반공화국침략책동이 극도에 달한 침에 한 정세속에서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행군을 진행하여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열풍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시었다.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 출발모임이 3월 23일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앞에서 진행되었다.

답사행군대원들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모임에서는 연설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전군에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주체의 건군사에 특기할 답사행군을 조직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그들은 이번 답사행군을 통하여 선군혁명의 시련과 자랑찬 승리의 역사를 심장깊이 체득하고 혁명전통의 믿음직한 수호자, 철저한 체현자로 역사에 준비할 결의를 표명하시었다.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강대성의 상징이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와 답사행군대기발이 행군대에 수여되었다.

이어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이 시작되었다.

답사행군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직지휘하신 보천보 전투가 진행된 역사의 땅에 들어섰다.

행군대원들은 오늘도 항일의 포연서린 군복차림으로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고무추동해 주시게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앞에서 종합해설을 들은 다음 전적지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보천보전투지휘처, 우편국, 면사무소, 소방회관, 경찰관주재소 등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전체적인 군사적예지와 지략으로 보천보의 총성을 높이 울리시어 인민들의 항일의 전진적업의 비범한 위인상을 뜨겁게 새겨안았다.

참관을 마친 후 그들은 행군길에서 보시리샘물터와 중흥동판명제비를 돌아보며 백두의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하시었다.

3월 24일 답사행군대원들은 쫓겨나도 그리던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백두산밀영

고향집을 방문하시었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은 행군대원들은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혁명의 장구한 로정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며 숯구치는 걱정을 금지 못하시었다.

행군대원들은 항일의 성지가 있어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 마련되었으며 선군조선은 백두의 위대한 혈통으로 승승장구할것임을 굳게 확신하시었다.

행군대원들은 사령부귀를집과 대원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사용하신 박우물과 손수 쓰신 혁명적구호문헌들을 깊이 감상하시었다.

이날 오후 답사행군대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성원들이 리용한 사자봉밀영을 답사하시었다.

귀중한 사적물들을 보며 행군대원들은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시게 위해 풍찬로숙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안았으며 우리 혁명의 시련, 우리 혁명전통의 뿌리에 대하여 더욱 잘 알게 되었다.

답사행군대는 3월 25일 리명수혁명사적지를 찾았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주제45(1956)년 6월 혁명전적지답사단을 이끄시고 백두산일대의 혁명전적지를 모두 밟고하여 훌륭히 꾸려 혁명전통교양에 이바지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사적자료들을 통하여 행군대원들은 백두의 혁명전통이 우리 당에 의하여 어떻게 굳건히 옹호고수되어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절감하시었다.

이어 청봉속영지와 건강속영지를 찾은 답사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진군의 길에 남기신 거룩한 자욱이 어려있는 혁명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밤을 지오신 자리와 우등불자리, 구호나무 등은 항일혁명선열들의 백혈같은 충정과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잘 보여주고있다.

3월 26일 행군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진군의 길에 들리신 배계봉속영지를 답사하시었다.

백두산지구의 성스러운 혁명전적지마다에서 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들어 조국해방성전에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투사들의 고귀한 넋을 깊이 새겨안았다.

답사행군대는 3월 27일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행군하여 삼지연혁명전적지에 도착하시었다.

행군대원들은 항일대전의 청년장군의 모습으로 거역히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그들은 백두산과 삼지연혁명전적지를 참관하였으며 삼지연군문화회관에서 백두의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군인들의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었다.

이날 저녁 야외속영을 한 답사행군대원들은 3월 28일 《혁명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무포속영지로 향하시었다.

무포속영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9년 5월 조국진군의 길에서 부대를 이끄시고 속영하신 뜻깊은 곳이다.

여기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은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실현을 위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무포늪시터 등이 있다.

력사의 땅에 깃들여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적들은 행군대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행군대원들은 이날 저녁에도 야외에서 속영을 하시었다.

속영지의 밤은 깊어도 눈을 깔고 누워 자면서 해방된 조국을 그려본 투사들의 열화같은 조국애와 혁명적관망주의가 가슴 후덥게 되새겨져 행군대원들은 잠들지 못하시었다.

답사행군대는 3월 29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들어가시어 정치사업을 진행하신 귀틀집이 자리잡고있는 신사동혁명전적지를 거쳐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에 이르렀다.

포연에 옷자락 날리시며 전투를 지휘하시던 20대청년장군의 군엄하신 모습은 모두의 가슴을 세차게 높여주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거룩한 위인상에서

새 힘과 용기를 가다듬으며 그들은 대흥단 전투지휘처와 왜놈들의 머리에 무서운 불벼락을 들이우던 그날의 통쾌한 전투담을 전하며 전승의 증언자로 서있는 이갈나무들을 돌아보았다.

이날 오후 대흥단전투장소에서는 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사적경기가 진행되었다.

화선에 나선 사수들은 항일의 전구에서 터져오른 총성을 조국통일대전의 포성으로 이어나갈 열적의 각오안고 명중총성을 높이 울리었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길을 힘차게 이어온 행군대원들은 어버이장군님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의 자욱이 어려있는 삼지연군의 무봉덕수리와 무봉고급중학교를 돌아보았다.

이들 그들은 우리 조국이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던 고난의 시기인 주제88(1999)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눈보라행군 길을 앞장서서 헤쳐가신 역사의 그 길을 따라 행군을 다그쳤다.

백두산갈림길현시비앞에 도착한 그들은 결의모임을 가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어 어버이장군님께서 빛내여오신 백두의 행군길을 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가시는 오늘의 빨찌산 간대장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따라 기어올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리라는 행군대원들의 철석의 맹세가 백두의 하늘가에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백두의 풀물오른 군복을 입고 혁명의 붉은기둥이 백두의 행군길을 이어온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은 삼지연대기념비로 향하시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삼지연대기념비 교양당앞에서 성대히 진행된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것을 굳게 맹세하시었다.

그들은 백두의 혈풍이 뿌리내린 력사의 성지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강령적인 연설을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을 안고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억세게 버려진 혁명의 총대, 계급의 총대로 조국통일대전과 반미대결전을 승리로 결속함으로써 이 땅, 이 하늘아래에 통일되고 무장혁명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올릴 때를 기다리었다.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행군의 나날에 백두산의 눈보라맛을 실감하며 백두의 혁명전통이야말로 조선혁명의 영원불멸할 생명선이라는것을 뼈와 살로 깊이 간직하시었다.

그들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최상기발 표모임과 우등불모임, 문답식학습경연 등 다양한 사업도 진행하시었다.

항일혁명선열들의 피어린 자욱이 그대로 스며있는 백두의 전구들에서 진행된 사상사업들을 통하여 그들은 억척만만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는 항일투사들의 백혈불꽃의 투쟁정신을 더욱 깊이 새기었다.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가슴깊이 간직한 행군대원들은 답사행군을 끝마친 결심으로 인민들속으로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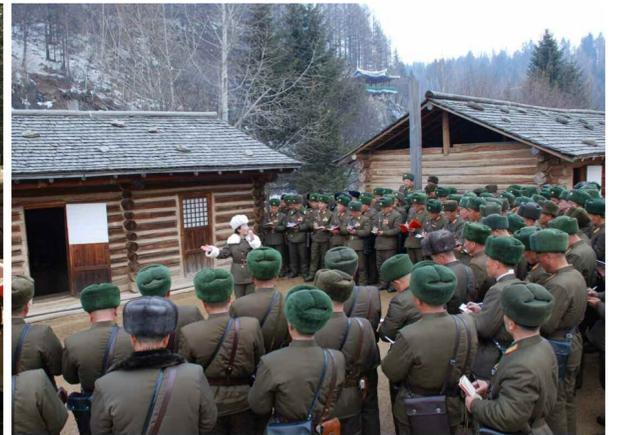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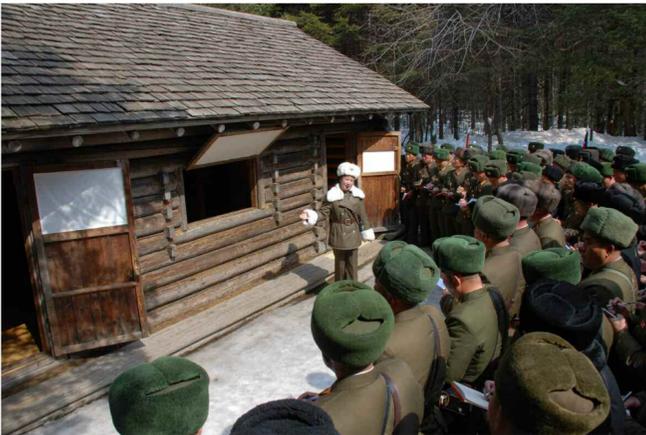
성껏 마련한 생활필수품, 영농물자 등을 넘겨주면서 항일유격대식으로 인민들과 함께 어울려 군민편환모임, 해설담화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군중정치사업도 진행하고 바쁜 일손도 도와주며 진정을 바치는 그들의 모습은 인민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으며 성스러운 백두대지에 군민대단결의 새 화풍을 감동깊이 펼쳐놓았다.

이번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 백두의 혁명전통을 최후승리의 보검으로 역사에 물려주고 총대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천만장병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일대 사변으로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성스러운 년대기에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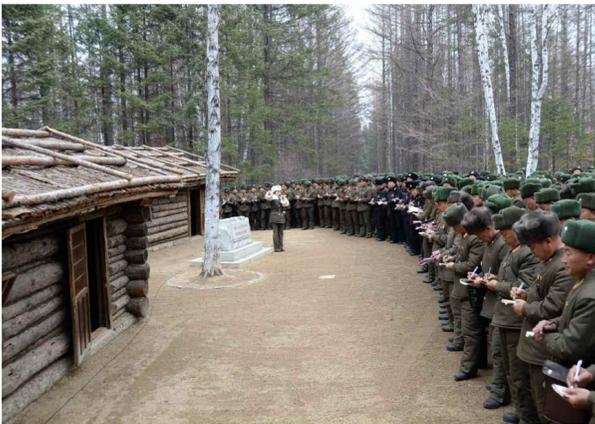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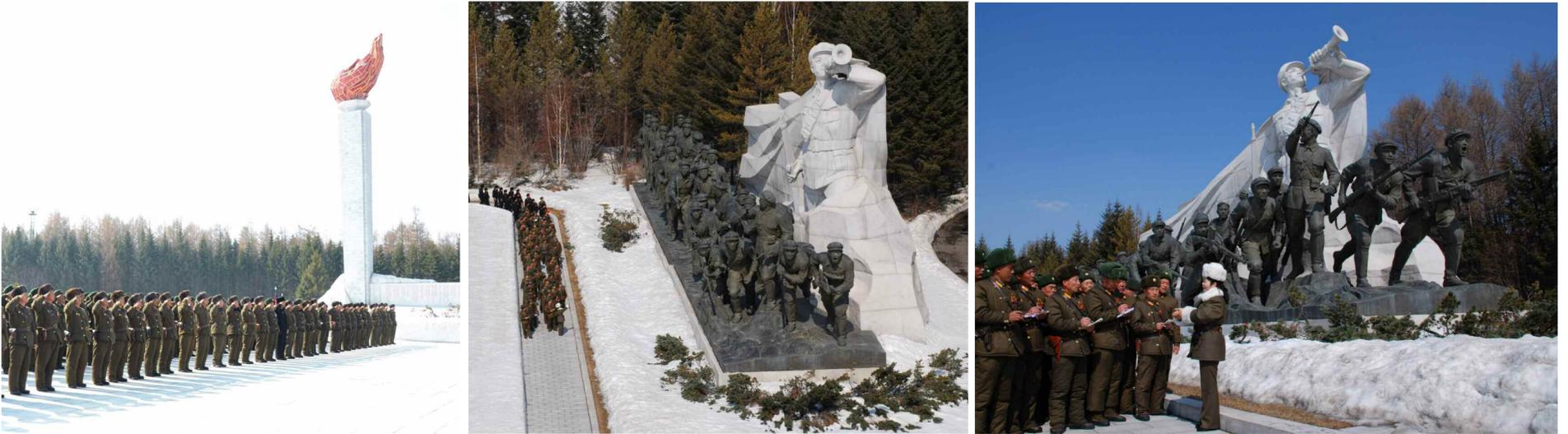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하자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 진행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하자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 진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가 몽골 공업 및 농업상일행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 온 조몽정 부간 경제, 무역 및 과학기술협력위원회 몽골측 위원장인 할트

마긴 바트르가 공업 및 농업상일행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조몽정 부간 경제, 무역 및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위원장인 리룡남무역

상, 황민 농업성 부상 겸 세로지구축산경리위원회 위원장, 판계부문 일군들과 마니바드라힌 간블드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에게 아일랜드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아인철 오도 노그루 주조 아일랜드공화국 특

명전권대사가 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공석용 외무성 부상이 참가하였다.

김영남 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회의 확대회의가 1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는 직총 중앙위원회의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직맹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제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연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직맹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제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연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에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제에 하는 원수님의 연설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강성번영과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미래를 밝힌 전략적대강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직업동맹의 성격과 임무에 대하여》, 《직업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동맹이 나아가 앞길을 활히 밝혀주시고 길을걸을 따름이 손잡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제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직업동맹이 사상교양단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동맹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고계신다고 말씀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제에 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연설을 자신들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체득해야 할것이라고 말씀하였다. 그들은 모든 일군들과 동맹원들이 경제에 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연설을 자신들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체득해야 할것이라고 말씀하였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경제에 하는 원수님을 순결한 향상과 의리로 받들어 모시며 목숨바쳐 결사옹위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제에 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학습열풍을 세계에 일으키고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참다

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킬것이라고 말씀하였다. 직맹조직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 우리 당의 새로운 번영로선과 방침들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화신선진, 화신선동의 포성을 높이 울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동맹원들속에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의 본질과 성격을 똑똑히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더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벌릴것이라고 말씀하였다. 여러가지 모범단위쟁취운동에 힘있게 벌리며 부문별, 단위별, 지역별, 단계별로 사회주의경쟁을 널리 조직하여 온 나라에 집단적경쟁열풍이 휘몰아치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자력갱생이 강성국가건설의 진로이라는것을 깊이 심어주어

동맹원들이 자기의 힘을 믿고 우리의 자기와 우리의 기술로 최첨단과정을 과감히 벌려나가도록 할것이라고 말씀하였다. 직맹일군들은 1970년대를 높은 충실성과 실력으로 당을 진심으로 받들며 전동맹을 로동당의 붉은 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직맹조직들과 직맹일군들이 경제에 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라는 구호를 백전백승의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사상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영광과 번영의 시대로 빛내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결정사항이 채택되었다.

박봉주 총리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데 대해 강조

【평양 4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박봉주내각총리는 황해남도 연안군, 청단군, 배천군안의 협동농장들의 영농실태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제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는 영농전투로 들끓는 협동농장들을 돌아보면서 농사를 앞설것을 기어이 위해 노력하고있는 농민근로자들을 고무해주었다. 현지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선진영농방법들을 적극 도입하여 울

해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이와 함께 련관단위들에서 농사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한편 총리는 평양비행장 2항공역사건설장을 돌아보면서 건설의 질과 속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박봉주총리 청담군 남촌협동농장 영농실태 현지료해



철길고착품생산에서 혁신 평양차량수리공장에서 철길고착품생산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제에 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올해는 신년사를 높이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이룩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미 수만개의 지지판을 생산보장한데 이어 매일 콩크리트침목블트와 나트, 압착판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일군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고착품생산투쟁의 앞장에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펴기있게 해나가고있다. 공장의 기술자들은 프레스에 의한 압착판생산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생산공정과 로력을 줄이면서 고제품의 질을 높이고있다. 강철작업반의 로동자들도 유도로에 의한 압연소제생산에서 종전의 기록을 돌파하고 생산량을 훨씬 높이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고무추동

조선과학기술총련맹 평안남도, 량강도위원회에서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에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평안남도위원회와 량강도위원회에서 도안의 모토 단원 과학자, 기술자, 기능공들을 연구사업과 기술혁신사업에 적극 참가시켜 생산과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조선과학기술총련맹 평안남도위원회의 일군들이 도의 과학자, 기술자, 기능공들이 도에서 진행하는 과학기술발전에서 적극 참가하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위원회에서는 도의 공장, 기업소들과 시, 군들에서 뜻깊은 올해에 진행하는 도과학기술발전에서 누구도 빠짐없이 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과 함께 그 성과적보장을 위한 선진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위원회에서는 건설건설, 석탄공업, 경공업, 농업, 정보기술 등 18개의 분야에서 과학전문과제 기술제안들에 대한 심의를 정확히 하여 등수를 가르고 촉진참가자들이 새 기술공급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었다. 위원회에서는 선진발전의 도해판제작을 비롯하여 촉진참가자들의 준비사업을 전선으로 도와주었다. 위원회의 일군들은 도의 과학

기술자들의 연구사업과 연구성과도입사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과정에 많은 성과를 거두는 과제가 있었다.

평안남도제철연구소의 안덕원 등수를 비롯한 일군들과 순천시제철소 리배철, 리용남, 어철동무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을 높이 받들고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으로 빛나는 성과를 맺어내는 실비를 자라게 연구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판리국에 청과물, 은산군, 개천시, 안주시에 있는 출력이 큰 방승기, 동력계통감시조종체계를 비롯하여 지난해에만도 5건의 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였다.

평안남도제철연구소의 안덕원 등수를 비롯한 일군들과 순천시제철소 리배철, 리용남, 어철동무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을 높이 받들고 조선과학기술총련맹 량강도위원회의 일군들이 올해 도과학기술발전의 의의에 힘입어 연구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판리국에 청과물, 은산군, 개천시, 안주시에 있는 출력이 큰 방승기, 동력계통감시조종체계를 비롯하여 지난해에만도 5건의 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였다.

위원회에서는 올해에 진행하게 되는 중앙과학기술총련맹 대회에 좋은 연구성과를 올려보내기 위한 준비사업에 큰 힘을 쏟고있다.

* * *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을 높이 받들고 조선과학기술총련맹 량강도위원회의 일군들이 올해 도과학기술발전의 의의에 힘입어 연구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판리국에 청과물, 은산군, 개천시, 안주시에 있는 출력이 큰 방승기, 동력계통감시조종체계를 비롯하여 지난해에만도 5건의 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였다.

수필

희망찬 배움의 종소리를 들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역사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교육을 떠서서는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없다.》
 이 땅에서 초등의무교육의 첫 종소리가 울려 퍼지던 1956년, 아직은 이 땅에 가련한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온 나라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며 재가루만 날리던 폐허에 공장을 일떠세우고 푸른대야에 개척된 구덩이들을 메우며 전야를 걸고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의 선진지명의 예지와 승고한 후대사상에 의해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초등의무교육이 실시되고 그로부터 두해후에는 중등의무교육이 실시되어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였다.

수필

희망찬 배움의 종소리를 들으며

가장 힘있는 존재로 키우시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위대한 교육의 력사, 후대사망의 력사라고도 할수 있다.

한없이 은혜로운 그 사랑속에 어제날 소작농의 자식이었던 혁명애도동무도 희망의 나래를 한껏 펼쳤고 오늘은 인민교원으로, 한계 교육공무원으로, 책임진 교육일군으로 성장한것이다.

어제 그 한사람만이라 하였는가.

년대와 년대를 이어온 이 나라 배움의 력사와 더불어 현대 문명에서 아득히 멀어졌던 우리 인민은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한 위대한 인민으로 세계의 경탄을 자아내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인내대군을 가지고있다. 위상제작 및 박사

제2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 개막

제2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였다. 이번 경기대회는 당이 제시한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며 인민보건사업에서 선진 전환을 이룩하려는 보건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각오와 열정, 평시에 편마해온 체육기술을 보여주는 의의깊은 경기로 된다. 개막식이 2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관계부, 보건부, 일군들과 근로자들, 선수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제2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 개막

강화국보건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을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정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백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시기에 제2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를 개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에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해 5월 보건부문 근로자들의 체육기술을 높고 보아주시고 필승의 신심과 활판을 안겨주시며 뜨거운 인정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그는 모든 선수들이 선진시대 보일군된 긍지와 자랑을 안고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오는 과정에 편마해온 높은 체육기술과 강한 단결력,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를 경기마당에서 남김없이 발휘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후 선수들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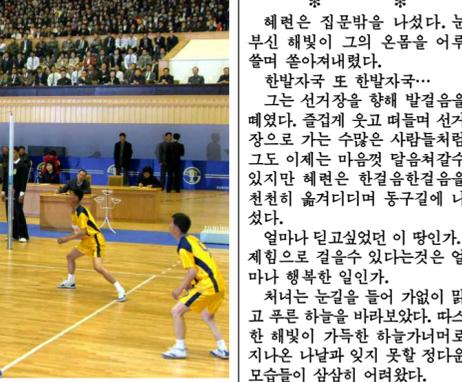
이어 남, 녀배구경기가 있었다. 5일 1일경 진행되는 경기대회는 축구, 배구, 탁구, 바둑, 당기, 씨름, 복싱, 집단달리기 등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경기들이 평양체육관 등에서 벌어지게 된다.



조로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5돐에 즈음하여 진선련환모임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5돐에 즈음한 진선련환모임이 2일 조선로씨야친선 모란봉제1층학 교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씨야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 일군들, 학



우리 나라와 몽골 정부사이의 량해문 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몽골 정부사이의 조선-몽골친선동맹수립에 관한 량해문이 2일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조인식에는 우리측에서 조



조선로씨야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 일군들, 학



조선로씨야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 일군들, 학

교육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개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시 중 군 에 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수필

희망찬 배움의 종소리를 들으며

가장 힘있는 존재로 키우시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위대한 교육의 력사, 후대사망의 력사라고도 할수 있다.

한없이 은혜로운 그 사랑속에 어제날 소작농의 자식이었던 혁명애도동무도 희망의 나래를 한껏 펼쳤고 오늘은 인민교원으로, 한계 교육공무원으로, 책임진 교육일군으로 성장한것이다.

어제 그 한사람만이라 하였는가.

년대와 년대를 이어온 이 나라 배움의 력사와 더불어 현대 문명에서 아득히 멀어졌던 우리 인민은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한 위대한 인민으로 세계의 경탄을 자아내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인내대군을 가지고있다. 위상제작 및 박사

교육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개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수필

희망찬 배움의 종소리를 들으며

가장 힘있는 존재로 키우시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위대한 교육의 력사, 후대사망의 력사라고도 할수 있다.

한없이 은혜로운 그 사랑속에 어제날 소작농의 자식이었던 혁명애도동무도 희망의 나래를 한껏 펼쳤고 오늘은 인민교원으로, 한계 교육공무원으로, 책임진 교육일군으로 성장한것이다.

어제 그 한사람만이라 하였는가.

년대와 년대를 이어온 이 나라 배움의 력사와 더불어 현대 문명에서 아득히 멀어졌던 우리 인민은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한 위대한 인민으로 세계의 경탄을 자아내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인내대군을 가지고있다. 위상제작 및 박사

수필

희망찬 배움의 종소리를 들으며

가장 힘있는 존재로 키우시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위대한 교육의 력사, 후대사망의 력사라고도 할수 있다.

한없이 은혜로운 그 사랑속에 어제날 소작농의 자식이었던 혁명애도동무도 희망의 나래를 한껏 펼쳤고 오늘은 인민교원으로, 한계 교육공무원으로, 책임진 교육일군으로 성장한것이다.

어제 그 한사람만이라 하였는가.

년대와 년대를 이어온 이 나라 배움의 력사와 더불어 현대 문명에서 아득히 멀어졌던 우리 인민은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한 위대한 인민으로 세계의 경탄을 자아내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인내대군을 가지고있다. 위상제작 및 박사

제2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 개막

제2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였다. 이번 경기대회는 당이 제시한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며 인민보건사업에서 선진 전환을 이룩하려는 보건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각오와 열정, 평시에 편마해온 체육기술을 보여주는 의의깊은 경기로 된다. 개막식이 2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관계부, 보건부, 일군들과 근로자들, 선수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제2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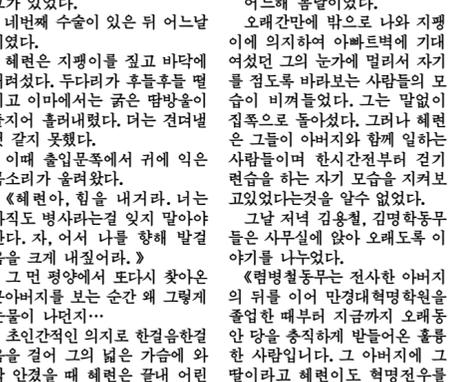
강화국보건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을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정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백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시기에 제2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를 개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에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해 5월 보건부문 근로자들의 체육기술을 높고 보아주시고 필승의 신심과 활판을 안겨주시며 뜨거운 인정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그는 모든 선수들이 선진시대 보일군된 긍지와 자랑을 안고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오는 과정에 편마해온 높은 체육기술과 강한 단결력,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를 경기마당에서 남김없이 발휘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후 선수들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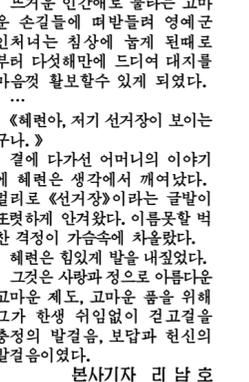
이어 남, 녀배구경기가 있었다. 5일 1일경 진행되는 경기대회는 축구, 배구, 탁구, 바둑, 당기, 씨름, 복싱, 집단달리기 등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경기들이 평양체육관 등에서 벌어지게 된다.



조로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5돐에 즈음하여 진선련환모임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5돐에 즈음한 진선련환모임이 2일 조선로씨야친선 모란봉제1층학 교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씨야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 일군들, 학



우리 나라와 몽골 정부사이의 량해문 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몽골 정부사이의 조선-몽골친선동맹수립에 관한 량해문이 2일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조인식에는 우리측에서 조



조선로씨야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 일군들, 학



조선로씨야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 일군들, 학

조선로씨야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 일군들, 학

아름다운 조국산천에 새겨가는 애국의 마음

봄빛이 한껏 짙은 계절이다. 따스한 햇빛이 강산에 넘치고 파릇파릇 새색이 울러나는 이 계절 우리는 거대한 숲의 교향곡을 듣는다. 푸르러 설레는 조국산천에 심어간 한그루 나무도 없이 참다운 애국을 어이 말하랴... 그렇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푸르러 설레는 조국산천의 숲들은 애국의 노래를 부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나라의 산림자원을 늘리고 온 나라를 숲이 우거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기 위하여 현재의 나무라도 더 심고 아끼고 가꾸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가슴을 울



애국의 뜨거운 마음안고 수종이 좋은 나무를 정성껏 심고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황해북도려단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특

《어머니, 우리가 심은 잣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좀 보세요.》 그러는 딸을 바라보는 최경희녀성의 얼굴에 웃음이 비친다. 두 남매가 학교주변에 잣나무를 심은 것은 4년전 봄날이다. 그것은 국현이의 동생 현아가 소학교에 입학한 날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열렬한 애국심은 나라자란 조국산천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라도 아끼고 사랑하는데서 표현되는 구체적인 사상경정입니다.》 그날밤에는 잣나무를 심으며 어머니에게 물었다. 이 잣나무에 언제면 열매가 달리는가. 《우리 국현이가 동생들을 사랑하듯처럼 이 잣나무를 사랑하면 열매도 먼저 달릴 수 있어.》 그날부터 그들의 나무가꾸는 생활은 어린 두 남매의 승벽심으로 이어졌다. 등교길에서도, 공부마치

푸른 숲의 속삭임 소리

사회주의의 청신한 향기가 넘쳐흐르는 인민의 무릉도원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려 보신 강성국가의 풍경이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토록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일터들에 세워져있는 산림조성정장계획도를 주의깊게 보아주시었고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어서는 병영주변의 나무를 상징하여 감나무중대라 정경해 불러주시었으며 어느 단위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에도 수림화, 원림화정형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셨던 것이다. 《푸른 산, 푸른 들!...》 그 시각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푸른 산, 푸른 들과 더불어 더욱 부강해질 내 조국의 패역을 그려보시었으리라. 산은 산마다 황금산, 보물산을 이루고 들에는 들마다 우리 손으로 가꾼 오곡백과가 주렁주렁 목욕에 물린 일터들에

이날 온 나라의 산을 푸른 숲으로 뒤덮이게 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문수봉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산림조성사업을 잘하는 것은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며 나라의 재부를 늘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나라를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킬 수 있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애국심을 높여주게 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진정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조국애, 위대한 헌신의 력사가 비껴있는 내 나라의 푸른 산, 푸른 들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과 헌신에 억센 뿌리를 두었던 내 나라의 푸른 산, 푸른 들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다.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그 뜻이 두해전 뜻깊은 4월에 발표하신 로작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 때 대하여>의 글줄마다 어려웠고 몸소 심어가꾸신 잔디들과 미림송마구락부를 비롯한 기념비적장소들의 한그루한그루의 나무들에도 정경해 덧붙여졌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이요 결심인 내 나라의 푸른 산, 푸른 들! 천만민이 한마음되어 우리 원수님의 그 리상, 그 념원을 꽃피워가야 할 뿐이다. 향유의 계절이 아니라 맹세와 실천의 계절이어서 우리는 이 땅의 봄을 사랑한다. 푸른 산, 푸른 들의 주인은

우리들이고 후대들이다.

이 땅에 심어간 한그루 나무 없다면 그들 두고 어찌 이 땅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어떻게 후대들에게 떳떳이 나설 수 있랴. 조국의 한그루한그루의 나무에 우리의 행복, 조국의 미래가 비껴있음을 자각함이 없이 강성국가건설이라는 거창한 애국업에 한몸 장그리 내뿜지 않았다. 인민지위구성 <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쏘올린 과학자, 기술자들도 발사장 주변에 수백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조국보위의 길에서 헌몸 서슴없이 바쳐서온 영웅적사도 장군도 모교를 떠나면서 세손은 조국을 애국자라는 값높은 이름으로 불러주시었다. 사람들이여, 푸른 산, 푸른 들이란 말을 무심히 외우지 말라. 그 경치를 부감하고 맑은 공기과 각종 새들의 지저귐소리를 음미하기 전에 심장에 손을 얹고 물어보라. 나는 이 산에 몇대의 나무를 심었는가.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 서 보아주시며 그러도 기뻐하신 그 산에 내가 심은 나무도 있다고, 나도 이 나라의 공민, 미래를 위해 산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게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어가주자. 봄날의 푸른 숲은 이렇게 속삭이고있다. 본사기자 리 경 일

재령군 산림경영소 양묘작업반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누가 보진말건 당이 맡겨준 혁명적소속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생을 빛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우리가 재령군산림경영소 양묘작업반을 찾았던 날은 나무모르는 날이었다. 농장에서는 풍요한 가을이 수확의 계절이라던 양묘장에서는 따스한 봄이 그런 계절이다. 양묘장의 나무모르는 날은 얼마나 흥성이는가. 이른아침부터 나무모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양묘공들께 하는 인사는 뜨겁고도 정답다. 《은한데 정말 수고들 많았습니다.》 그들의 정성이 담긴 말은 비단 양묘공들의 일손을 계속하지만 않는다. 지나는 한해의 나날을 그려보게 한다. 농작물을 키우는 일이나 나무모를 키우는 일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양묘공들도 봄에는 씨앗을 물고 여름에는 피야벌속에서 두벌, 세벌길을

의 진짜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산림리 하나라도 삼할라라, 김 한대라도 있을세라 정성을 기울인 그 모든 날들을 무성한 숲은 뜨겁게 새겨 안을 것이다. 불같은 헌신과 순결한 망심으로 키워온 나무모들을 떠나 보내는 양묘공들은 한없는 긍지를 느낀다. 라일범동무는 말하였다. 《몇해전 쯤은 한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서 어느 한 산림경영소의 양묘작업을 찾았으셨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무성한 숲을 보시면서도 우리 양묘공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어머이장군님, 장군님의 그 유훈을 받들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양묘공들입니다. 양묘공의 기쁨, 그것은 진정한 애국자만이 맛볼 수 있는 자랑이고 영예이다. 본사기자

두그루의 잣나무와 남매

보통강구역 락원동 29인민반 최경희녀성의 가정에서 고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그들은 꼭 잣나무를 보고서야 발걸음을 떼곤 하였다. 나무의 아지가 상하지 않았는가, 키는 얼마나 더 자랐는가... 자칫들이 심은 나무를 정성껏 가꾸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는 최경희녀성의 마음도 흐뭇하였다. 한해가 흘렀다. 어느 휴식일 국현이네 집은 아침부터 술렁이었다. 《오빠, 아버지가 오늘 우리가 심은 잣나무를 집 열러 갔네.》 이렇게 말하는 현아의 얼굴에 자신감이 어려있다. 어머니가 구해다준 잣나무판과 판본한 책들을 오빠보다 먼저 보냈다고 늘 자랑을 지던 현아였다. (내 잣나무가 더 커야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현아는 썩 문밖으로 나갔다. 손잡같이 달려가 나무가지에 얹혀있는 눈을 살피며 떨어지고 현아는 그애도 응송려 없었다. 문득 할아버지가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이 떠올랐다. 《...우리 현아가 심은 잣나무가 보고싶구나. 얼마나 컸을까? 날씨가 추워지는데 잣나무가 얼지 않게 잘 관리해 주라. 절변에 너희들이 부탁했던 꽃씨 100봉지를 보낸다.》 (할아버진 내편이야.) 이런 생각으로 현아는 세손으로 심어가꾸는 잣나무를 한참만 바라보았다. 전정로반인 그의 친할아버지는 늘 그날밤에계 정경시가지 위문담과 함께 불란 고지 의 소나무 한그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였다. 전수들의 더운 피스민 땅에서 심은 소나무는 그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수심년간 기회를 기다릴 때가 나무가지에 얹혀있는 눈을 살피며 떨어지고 현아는 그애도 응송려 없었다. 문득 할아버지가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이 떠올랐다. 《...우리 현아가 심은 잣나무가 보고싶구나. 얼마나 컸을까? 날씨가 추워지는데 잣나무가 얼지 않게 잘 관리해 주라. 절변에 너희들이 부탁했던 꽃씨 100봉지를 보낸다.》 (할아버진 내편이야.) 이런 생각으로 현아는 세손으로 심어가꾸는 잣나무를 한참만 바라보았다. 전정로반인 그의 친할아버지는 늘 그날밤에계 정경시가지 위문담과 함께 불란 고지 의 소나무 한그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였다. 전수들의 더운 피스민 땅에서 심은 소나무는 그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수심년간 기회를 기다릴 때가

이 갈 나무숲에 들어나는 새둥지

린산군 상하리 10여리 구간에 이 갈 나무숲이 무성하다. 목욕우거진 산에서 평들이 깎여져 날아오르고 노루가 무리지어 뛰는다. 나무들이 울려대며 날아오는 새들의 지저귐소리도 정답다. 딱따구리, 클락새, 흰 까치... 《나무를 심는 것도 그렇지만 새둥지를 만드는 것도 여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새 자랑을 모르는 심재환동무가 몹시 금지스러워하는 말이다. 그렇다. 해마다 수십만그루의 나무를 심으니 목심만초 우거진 숲에 또 얼마나 많은 새들이 날아들었는가. 지금 상하리의 숲에는 새둥지가 500개가 넘는다. 새둥지모양도 여러가지이다. 새들의 특성에 맞게 아가자기하게 만든 새둥지에는 아가자 새들이 날아든다. 푸른 숲 속에서 온갖 새지저귀는 린산군 상하리가 정답 행복의 동산같은 사람들의 말에 실재한 새둥지는 그저 좋아 웃기만 한다. 이 나라의 숲에서 애국의 마음을 안고 목욕히 헌성을 바쳐가고있는 수많은 산림감독원들이 그려 하듯이 그의 마음속에도 꿈이 있다. 《아직 할 일이 많습디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커가는 꿈, 암담한 미래

지난 4월 1일 우리가 뜻깊은 새 학년도의 첫 수업을 진행하는 김성주소학교 1학년 1반 교실에 들어섰을 때였다. 12년제꽃대문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학생들의 얼굴마다에는 밝은 웃음이 한껏 어려있었다. 정경은 눈길로 학생들을 일별하던 담임교원 리운선동무가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되겠다는가고 물었다. 학생들 이 차례로 일어나 도량 도량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나라를 지키는 인민군대가 되겠다는 김일영학생, 공부를 잘해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리는 과학자가 되겠다는 리다정학생, 그 뒤를 이어 체육인, 교원, 의사, 영웅이 되겠다고 자기의 희망을 터놓는 나이현 학생들.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되어있는 꿈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가. 태양의 영원한 빛발아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이 땅의 미래를 가슴번차게 안아보게 하는 순간이었다. 앞날의 크나큰 포부를 안고 기쁨과 환희에 넘쳐있는 학생들의 명랑한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머리속에 문득 얼마전 유연의 한 기구가 밝힌 자료가 떠올랐다. 세계적으로 2억 5000만 명에 달하는 소학교나이의 어린 아이들이 글을 제대로 읽거나 쓰지 못하고있으며 초보적인 계산도 하지 못하고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판이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사회

몇해전에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경위와 사고처리정황만 보아도 자본주의체제의 반인민적정책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다. 많은 인적, 물적피해를 가져다준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로 말하면 만천하의 지진과 해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라는 것이다. 명백히 말하면 그 파괴적재난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으나 그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것이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견해이고 인식이다. 이 문제를 두고 세계는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사고가 자연적 요인뿐 아니라 사람에게서 책임이 있는 인제라고 평하였으리지만 당시 수상까지도 그것을 인정하였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설계와 안전성검증을 담당하였던 기술자의 말에 의하면 이 원자력발전소는 시작부터 사고요소를 안고있었다고 한다. 기술자들은 특대형지진 등으로 타인이 파괴되고 로가 직접 타격을 가능성을 예상하여 안전성보장장비를 검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그들은 리허리척으로 9.0의 지진이 일어나거나 비행기가 추락하여 원자로를 직접 타격할 가능성까지 예상한 견지를 상급에게 제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휴지장이 되고 말았다. 원인은 수지타산에 있었다. 1000년에 한번 있을거날

사회주의의 진지를 철벽으로!

까지 받은 일본이고보면 심본 리해되는 일이다. 원자력발전소사고가 일어난 지 여태가 지났지만 그 피해를 가시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있는 일본정부의 립장과 태도는 남이아 어떻게 되든 저 혼자 잘살면 그만이라 하는 극단한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근근대중의 자본과 리익은 안중에 없는 자본주의체제의 반동성과 부패성의 일면이다.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서도 우리는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근근대중은 온갖 재난과 불행과 고통속에서 한자도 벗어날 수 없다는것을 잘 알 수 있다. 본사기자 홍성철

